칼 럼

바람직한 기다리는 마음

정 기 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검은 토끼해인 계묘년(癸卯年)이 마지막 달인 12월로 접어들었다. 기독교 문화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기 이전에 네 번의 주일을 포함해서 지켜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待降節)이 올해는 12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릴 뿐 아니라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산다.

봉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봉급날만 기다리며 살다가 퇴직하는 날이 된다고 한다. 우리는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명절이나 생일처럼 기다리는 날이 있고, 시험을 치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림이 있고,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기다림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인생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삶과 시간을 말한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다가 죽는다.

기차가 레일을 달리듯이 인생행로는 육체라는 몸을 정신이 운전하면서 종점을 향해 가고 있다. 기차는 가다가 정거장에서 멈췄다 떠나고 떠나면서 종착역을 향해 달린다. 기차의 종착역은 내려 하차하는 곳이 되며, 일을 마치고 다시 차표를 사서 승차하여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인생 승차는 일방통행의 차표로써 종착역에서 갈아타고 되돌아갈 수 없다. 기차를 타는 손님은 다음 역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 종착역에 도착한다.

인생도 한해가 지나면 더욱 나은 다음 해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인생 종착역인 죽음에 이른다. 인생의 기다림에는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린다. 기다리는 마음은 기도 하는 마음이다. 기도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신에게 갈구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남을 해치고 나를 앞세우려는 노력 없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기도는 신이 응답하지 않는다. 기다리는 마음은 온갖 노력을 하고 노력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다.

따라서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나를 위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씨앗을 심고 기다려야지 남을 해치는 악의 씨를 심고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도박하는 사람이나 증권투자를 한 사람의 좋은 결과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쳐야 나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기다림인데, 이러한 기다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정성껏 가꾸면서 좋은 열매가 맺기를 기다리면 곡식들은 잘 자라서 가꾼 농부에게 좋은 열매를 맺어 보답한다.

인생도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나도 성공하는 좋은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고 힘써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온갖 노력을 했으면 한다. 기다리는 마음은 목적이 뚜렷하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기다림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며 일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기다리는 마음은 좋지 않으며 이루어질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성공의 씨앗인 꿈과 희망의 씨앗을 심고 최선을 다해 가꾸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사람은 기다림의 연속선에서 살다가 죽음으로서 끝을 맺는다.

지금 나의 기다림이 무엇인지 그 기다림을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보람 있는 기다림, 결과가 연속되는 삶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된 채 반백 년이 넘었으며 온 국민이 바라는 기다림은 죽기 전에 남북통일을 보고 죽는 기다림이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다. 온 국민이 기다리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최대의 노력을 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인생 종착역이 가까워지는 노년의 기다림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종교적 신앙이 말하는 내세에 대한 기다림이다. 내세를 믿고 준비하고 기다림은 종교적 신앙이다. 내세가 없다면 인생은 죽음으로써 종말이 되고 너무나 허무한 것이다. 종교적 신앙이 깊은 사람은 인생을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 인생으로 보고 영원한 삶의 내세에 미련을 가지고 믿으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는 노력한 대가로써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며, 좋은 기다림의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서, 바람직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으면 한다.

기 고

당신의 소중한 재산을 피싱으로부터 지키는 법

김 수 연 장흥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신종범죄의 등장에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악성 코드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전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사례는 신용카드사를 사칭한 수법으로 카드발급 문자를 발송해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것이다. 본인이 신청한 카드가 당연히 아니기에 문자에 기재된 상담번호로 전화하면 신용카드사 직원을 사칭 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빼낸다. 본인이 카드를 신규로 발급 받았든, 문자로 온 카드가 잘못된 카드이든 선불리 상담원에게 연결할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생각한 뒤, 통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 다른 수법은 택배회사를 사칭하여 배송지 주소를 변경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문자 내 URL에 접속하면 악성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악성 앱은 휴대폰을 일정 시간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작하여 그 동안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뱅킹앱에 접속하여 자금을 편취한다.

위와 같은 수법 뿐만 아니라,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수법 등 기본적인 피싱으로부터 당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OTP(일회성 비밀번호생성기), 보안토큰(비밀정보 복사방지) 사용하기,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절대 입력하지 말기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경찰서나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피싱 피해 내용을 신고하여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은행에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알고 있는 만큼 당할 위험성은 낮아지기에, 새로운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숙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생각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어느 순간에서든 당황하지 말고 잠시 멈추고, 생각한 뒤, 통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 순 열 편집국장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5·18민주묘지의 소나무와 십지지신상, 그리고 청렴

박 제 훈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아침, 저녁 매서운 바람으로 외투를 여미게 되고 나무들도 잎사귀를 떨어뜨리며 추위를 준비하는 초겨울의 계절, 국립5·18민주묘지는 여전히 푸르르다. 이유는 묘지 전역을 감싸고 있는 1,000여 그루의 소나무 덕분일 것이다.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5·18민주묘지와 청렴을 상징하는 나무인 소나무와의 만남이 얼핏 보면 연관성 없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청렴(淸廉)은 맑을 청(淸), 살필 렴(廉)의 한자어로 "맑은 마음을 살피라"는 뜻으로 쓰이며, 군부독재의 혼탁한 시대상황에서 민주주의라는 맑고 푸른 가치를 위해 싸웠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결을 같이 한다는 생각이 든다.

5·18민주묘지를 거닐다 보면 또 한가지 독특한 시설이 눈에 띈다. 바로 쥐와 돼지가 없는 10개의 십이지신상이다. 5·18민주유공자들은 고인이 되어 이곳에서 생을 멈추었지만 그날의 숭고한 희생과 가치는 시작과 끝이 없이 계속 될 거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전해진다.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이라는 가치가 예로부터 시작과 끝없이 마음을 경계하고 지켜야할 덕목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 겨울 5·18민주묘지를 찾아 소나무의 푸르름을 느끼며 맑은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군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